

청소하고 내외부 꼼꼼히 검사해야

이제 곧 한가위다. 올해 추석연휴는 공교롭게도 징검다리 휴일이 끼어있어 일주일 이상 장비를 쉬게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장시간 장비를 가동하지 않다가 다시 가동하게 되면 의외로 많은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이에 CTP 관리와 관련한 몇몇 상식을 소개한다.



연휴 전, 고무액 제거 필수

CT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기이고 그 중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고무액(Gum)이다. 현상기를 장시간 세워 놓는 상황에서 고무액이 현상기에서 제거되어 있지 않으면, 롤러 뿐만 아니라 고무액 보충 펌프, 각각의 호스가 막힐 수 있다. 심지어는 메인 모터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무액은 반드시 현상기에서 제거해야 한다. 고무액을 제거한 후에는 물을 충분히 채워서 각각의 펌프와 호스에 묻어 있는 고무액 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는 현상액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현상액도 현상기에서 제거한 후에 물로 채워서 각각의 기관(각각 연결되어 있는 배관, 보충 펌프, 순환 펌프)들이 확실히 세척될 수 있도록 충분히 워밍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Pre-wash와 Rinse 부분의 노즐도 가끔적이면 청소해, 판 찌꺼기들이 며칠 사이에 노즐 구멍에 굳어서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엔진 부는 장시간 정지해 놓게 되므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이드 커버가 제대로 닫혀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RIP 서버 쪽의 본체 안에 실리카 겔과 같은 방습제를 넣어 두는 것이 좋다.

연휴 후, 내외부 온도 맞춘 후 전원 넣어야

전원을 바로 넣지 말고 외부온도와 내부온도를 충분히 맞춘 다음 CTP를 켜는 것이 좋다.(후지 CTP는 21~25 °C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엔진부의 스피너 표면 상태, PAT 상태 등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지지분하다면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 PAT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면 Optic부에 먼지가 바로 침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판의 품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간지부의 간지가 다 비워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편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편치 트레이가 정상적으로 비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드럼 내부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카세트도 먼지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상기에서 세팅이 끝나고 워밍업, 현상액 온도가 정상으로 올라갔다면, 실제로 판을 찍기 전에 MMI(엔진의 액정)에서 Exposure Calibration을 실행해서 레이저 파워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RIP을 실행, Calibration 데이터를 보내 농도가 정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김택준 (주)솔루션 기술서비스팀 대리〉